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茶와禪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마음씨 타령 ⑦

지금으로 봐서 이 방에 나올 때는 이거 전생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세포가 많이 달라졌어.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 말하는 중에도 달라지고 있어. 이 방에 있을 때는 전생, 지금은 당장, 조금 있으면 후생입니다. 또 크게 봐서 이 몸 죽어지면 죽으면 후생, 지금은 현재, 또 내가 나기 전에는 전생. 그거 사실로 전생 후생 미래 해 봤든. 삼세 삼세 삼세. 지금 내가 말하는 중에도 과거 현재 미래 계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뚱이를 못 봐서 그렇지 만약 이것이 현미경쯤 되는 안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 하는데 삼세 삼세 삼세 죽 연속입니다. 이 몸으로 봐서는. 그러나 이거를 굴러. 끄집고 다니는 그 자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기 때문에 삼세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인제 그 자리에서 다시 헛것을 나누어. 자꾸 변하는 삼세 삼세 삼세 변해 나가는 헛것을 나누어. 나누기 나누지만은 그러나 나누는 그 당처는 이 지구가 생기기 전이 지구가 깨진 후이라도 의젓하게 있는 거예요.

물달을 나눌 거예요. 물달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깨끗한 데 물달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줄 아시고. 마음씨타령이 좀 깊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때는 설법 간단하게 하라는 말 들었습니다. 그래야 대중이 모여든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귀찮더라도 나는 생각에 한 마디라도 더 넣어주려나. 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설법 시간이 늦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귀찮더라도 자꾸 좀 더 들으면 어딘가 써먹어. 나중에 그 공덕 자리에 가.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환신 사려면 깨끗하게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이 이렇게 너는 슬기가 좋게 얼굴도 좋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천당 지옥도 누가 만들었는데 내가 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 천당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지옥도 내 지옥 내가 지어서 가는 겁니다. 지옥을 짓든 천당을 짓든 그건 내 마음이 하는 거니까 그건 누구한테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까 부처님은 이리 어려우니까 내가 마음씨를 이래 이래 가져라 가르쳐 주셨지 지옥으로 가는 걸 너 못 간다 이래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만 자비심으로써 통탄만 할 뿐입니다. 전부 지가 지어서 지가 가는 겁니다.

“

부처님 지혜 알려줄 뿐
지옥행 막지는 못해
절대 누리의 주인공인
자신이 지옥도 천당도
만들어 낸다.
내 마음이 하는 일이니
누구한테 의논할 수 없다

”

간단히 합니다. 여러분 아주 깨끗하고 좋다. 이래할 겁니다. 나는 그런 깨끗하고 좋은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강송] 한생각의 굴림새로 나고죽어서 나고 죽는 거는 한 생각 굴림새거든요. 이거 이상하죠. 전부 나고 죽어. 난다 죽는다. 우리가 모습을 나누는 건데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좋게 가지면 훌륭한 몸을 나누어. 한 생각을 좋게 못 가지면 훌륭한 몸을 못 나누어.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젠 과학적입니다. [강송] 천당지옥 제가 짓고 울고웃으나 어즈버야 꼭두임을 이에깨칠새 지화자자 좋을씨고 장승은 된다 돌장승이 뛰어. 왜 그러나. 돌장승 아닌 게 아니라 내 몸이나 한가지입니다. 천당 지옥, 나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누리의 주인공이 살림살이를 어떤 때는 나쁘게도 해. 어떤 때는 좋게도 해. 이것이 다를 뿐이지 나쁘게 해도 누리의 주인공이고 좋게 해도 누리의 주인공인데 우리는 천당과 지옥 다시 말해서 지옥과 극락세계 누가 짓느냐. 경에도 이따를 극락세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전부 방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집도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좋은 집을 지어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옷도 돈 있으면 좋은 옷을 내가 지어입는 것이지, 남 지어 놓은 걸 내 몸에 입지 못합니다. 입었던 치수가 안 맞아요. 그러하니까 마음씨가 쇠뿔. 이 자리, 돌장승이. 이 자리가 참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러하니까 전부 내가 지어서 이래 가는 건데, 산하대지가 다르지 않은 몸이라. 전부 내 몸이라. 지구도 내 몸뚱어리의 연장자입니다. 그러하니까 부처님은 무정물은 무정물대로 봐. 나는 내대로 봐. 돌로 보면 그런데 돌로 보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그대로 딱 보면 하나거든요. 내 마음이 뛰다 하면 뛰는 것이지만 안 뛰는 거 뭐 있었습니까. 뛰어도 뛰는 것이 아니고 안 뛰어도 안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어렵지만 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쓸 일 있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역회 · 보림선원

茶로 가는 길에 禪의 길 있다

대저 선이란 무엇인가?

바로 수행의 방법 그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불가에서는 이를 두고 좌선 또는 수선이라고도 한다. 심지어 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종파까지 생겨나게 되었으니 곧 선종이 그것이며, 이의 종조를 대사라 이른다.

‘선(禪)’이란 인도의 말로서 선나(禪那)라는 한자화한 말의 약칭이다. 일찍이 인도에서는 그 백성들이 수행하는 방도로서 선나 또는 요가, 사마디, 삼매(三昧) 등으로 불리는 수행을 즐겼는데 설혹 그 방법은 서로 각양한 것일지언정 내용은 같은 뜻을 지닌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 등이 그 방법이다.

그러면 이를 통해 무엇을 얻는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 흐트러짐이 없이 침착하고 고요한 가운데 모든 사물이 자기 속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을 정관(靜觀)하는 일이다.

이 정관이 소우주를 자기 마음에 키우는 것이야말로 바로 동양의 지혜로 동양 다움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선도(禪道)나 차도(茶道)를 통해, 자기가 없어도 우주, 인생이 있을 수 있고, 자기도 없고 우주도 없는 마침내는 인생 또한 없이 하여 주는 경지 곧 자기와 전 우주인생이 함께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는 힘을 얻는다.

드디어 때로는 한 생각으로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그 모아진 한 생각까지를 없이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안에 그 심경은 맑아진다. 마치 고인 물이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맑은 여물을 이루는 것과도 같은 경지다. 그러한 까닭으로 차와 선을 익힌 사람은 그 마음이 맑고, 고요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는 자연 거룩하게 비치게 된다.

어찌하여 그런가? 그것은 모든 사물에 달관(達觀)되었으므로 그 인간은 이욕락(欲樂)의 먼지 땅을 떨쳐나 있기 때문이다. 고요히 사물을 관찰하고 그로써 일상의 모든 몸가짐을 이성적으로 하고, 그 행동에 있어 조용하고 침착하고 부드럽고 슬기롭게 하는 일이 어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바로 ‘차와 선’은 그러한 경지를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육신과 심정을 가볍고 쾌하고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는 길이 곧 이 ‘차와 선’을 통해서이다.

그러면 차성(茶聖) 초의(草衣)는 이 선

의 길을 선이라 부르는 것보다 지관(止觀)이라고 즐겨 말하고 있다. 이 지관이 라는 말은 지(止)라는 뜻과 관(觀)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어로서 된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한 경지에 이르렀을 경우를 지라 하고, 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시시각각으로 객관적인 주관적인 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떠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처리해야 하는 깨우침의 생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는 어디까지나 관행의 과정인 것이며, 이 경지의 지가 숙련된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때를 막론하고 올바른 판단 하에서 생활하여 나가

혹은 조사의 깨친 지경을 물을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말로서 “차 한잔 마시게나” 하는 대답을 하였다든 것인데, 이것을 후인들은 그냥 선문답이라는 공안이라 하여 알기 어려운 의식의 표적이 되는 화두라고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주선사가 묻는 제자들에게 복잡한 문제거리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각성생활(覺醒生活)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평상심이 곧 도라는 것을 지적한 것에 있다 할 것이다.

“

속마음을 정관하는 '선'
소우주 마음속에 키우고
나와 우주 호흡하는 힘 기른다

고요히 사물을 관찰하고
몸가짐을 이성적으로 하며
침착하고 슬기로운 마음가짐의
경지로 가는 지름길이 '차와 선'

”

게 되므로, 이것을 깨친 견해, 깨친 행동이라는 뜻에서 관행(觀行)이라고도 말한다. 이것을 원효대사는 그 <금강삼매론>중에서 크게 밝힌 바이며, 그 이전 중국의 천태지대사도 밝힌 바이며, 또 보조선사(普照禪師)도 정혜쌍수라고 말하고 있는 바이다. 어찌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다시 말해서 불을 피워서 물을 익혀 먹는 일상생활의 그 어느 지경도 차생활의 전부인 것이므로, 차는 모든 것을 그대로 그 특성을 살려가면서 생활한다는 뜻으로 우리들은 이것을 ‘살림살이’라는 말로써 즐겨 쓰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중국의 조주선사는 그 제자들이 불도의 대의를 그에게 물을 때나

다시 말해서 차생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주변 즉 살림살이하는 데 있고, 이것이 선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곧 선의 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의선사 같은 이는 ‘무시선무처선(無時禪無處禪)’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요, 완당 선생은 “정좌 처차반향초(靜坐處茶半香初)”라고도 하고 “묘용시수유화개(妙用時水流花開)”라는 자연스럽고 평범한 지경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또 한편 차는 일상 우리 인간이 나면 서부터 물기를 먹고 마시며 살아온 인간의 본능적인 식생활과 계절 따라 입어야 하는 일상생활, 그리고 집을 지어 거처하며 그 주택의 주변인 정원을 꾸며 꾸려나가는 생활의 영위를 하는 데 있어, 그 어느 것이나 살림살이 않고는 못 배기는 현실에서 크게 착안한 것임을 볼 때 차도의 너그로 너른 광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선은 그 자체가 현실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말하는 한편 너무 범박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방면을 치중하여 가는 선객들이 구두선(口頭禪) 또는 야호선(野狐禪)에 떨어져 한 가지 공상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을 때로는 보게 된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선이 조주선사나 초의차성의 편에서 서서 그 실다운 힘과 생생한 화로가 열렸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차로 가는 길에 선의 길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7) 중 제 1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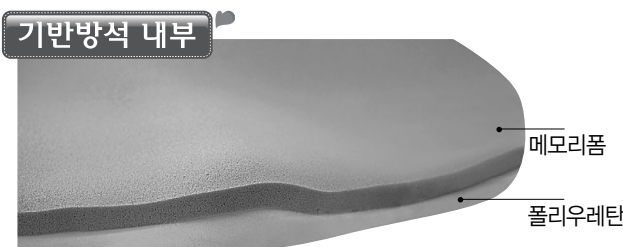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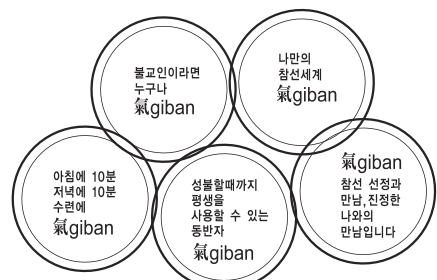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 108 +
· : 10mm

* 100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담석은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습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